

힘들수록 다 함께! 육우의무자조금 동참으로 위기를 넘자

육우 의무자조금 추진위 경기도위원회 결성식(6.20) 개최결과

국내 최대 육우 산지 경기지역에서 육우의무자조금 추진에 대한 결의 의지를 다졌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육우분과위원회(위원장 최현주)는 6월 20일(목) 안성축협 2층 대강당에서 협회 임직원 및 경기지역 육우사육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우의무자조금 추진위 경기도위원회 결성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를 진행한 강병권 前이사는 지난 해 9월 충북 청주에서 개최한 의무자조금 사업 추진위원회 결의를 시작으로, 수차에 걸친 지역별 간담회와 도별추진위원회 결성식 개최 등 그간 육우의무자조금 추진 경과를 보고하면서, “내년 사업개시를 목표로 도입활동에 박차를 가하자”고 당부하고, “성공적인 육우자조금의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다짐하였다.

최현주 육우분과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육우값이 폭락하고 육우사육농가들이 사육의지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육우소비의 저변을 보다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육우의무자조금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현주 위원장은 안건논의를 통해 “육우농가 모두가 힘들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힘들수록 더욱 함께 해야 한다”고 하고, “육우의무자조금 동참으로 위기를 뛰어넘자”고 당부하였는데, 이에 행사에 참여한 육우농가 일동은 큰 박수로 화답하며 의무자조금 사업참여와 경기도 추진위원회의 결성을 결의하였다.

아울러 경기도추진위원장에 정덕훈(안성)씨를 만장일치 추대하는 한편, 부위원장으로 김을수(안성)씨, 권혁진(안성)씨, 정지현(양주)씨, 송영기(용인)씨, 정동평(포천)씨, 윤원(화성)씨를 결정하고 총무에 박대안(안성)씨가 활동하기로 하였다. ☺